

프랑스의 지리 평가 특성 분석: 바칼로레아 지리 시험을 중심으로

이간용*

A Features Analysis of France's Geography Assessment: Focused on the Baccalauréat

Khan-Yong Lee*

요약: 본 연구는 지리의 교과적 위상이 높은 프랑스의 지리 평가에 대하여 형식적, 내용적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주요 분석 자료는 최근 15년간(1999-2013) 바칼로레아 역사-지리 시험 중에서 지리 문항이다. 프랑스의 지리 평가에서는 목적 면에서 문화적 소양의 함양과 그래픽 언어력의 배양이 전통적으로 중시되고 있었다. 형식면에서는 전체적으로 간결한 디자인을 취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있었고, 논술이나 지도 작성 등 다양한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지리 지식의 자기주도적 구성 능력과 공간적 표현 능력, 그리고 자료 탐구 역량 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내용 면에서는 대륙적 국가 규모 이상의 공간 단위와 정치경제지리적 주제가 결합된 세계지리 내용이 평가의 요체를 이루고 있었다. 결국 프랑스의 지리 평가는 공간조직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세계에 대한 거시적 이해와 조망 능력을 강조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바칼로레아의 역사-지리 시험에서는 역사와 지리 두 영역 간 형평성을 이루려는 여러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다.

주요어: 프랑스, 지리 평가, 바칼로레아, 세계 조망, 정치경제지리적 주제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lucidate features of the geography assessment of France in which geography has a high status in school curriculum. The main data for analysing are the geography examinations(1999-2013) of the Baccalauréat. In terms of objectives of the assessment, the exams put emphasis on promoting cultural knowledges of students and developing their competences in graphic languages. In terms of formal aspect, the exams take a simple layouts to raise a readability, use variable test tools, especially an essay and a 'croquis'. They also emphasize students self-directedly constructing and representing geography knowledges and their inquiry abilities with geography materials. In terms of contents aspect, the exams mainly cover subjects of political-economic geography, particularly a spatial organization, a development inequality and the world powers in global contexts or macro spatial scales. One of a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of Baccalauréat's History-Geography examinations is that it designs to keep balance between two parties; history and geography.

Key Words: France, geography assessment, Baccalauréat, spatial perspectives of world, subject of political-economic geography

이 논문은 2013년도 공주교육대학교 교내학술연구지원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 공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ylee@gjue.ac.kr

1. 서론

교과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에는 해당 교과가 추구하는 목표와 내용, 그리고 실제 교수-학습 활동의 맥락이 담기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잠재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특성은 국가 수준에서 계획되고 실행되는 입시 시험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따라서 어떤 국가의 특정 교과 교육의 특성은 교육과정 문서나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는 일보다는 평가 체제와 문항을 고찰함으로써 더 잘 파악될 수도 있다(이간용, 2008a).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세계 여러 나라 지리 교육의 특성을 평가적 관점에서 고찰하려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일본,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프랑스의 지리 평가 특성을 구명해보고자 한다. 프랑스의 지리 평가를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유럽, 그것도 비영어권 국가의 지리 평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는 역사-지리 교과가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고, 그에 따라 프랑스의 대학 입학시험에서 역사-지리 시험은 필수로 지정되어 있어 그 지리 교육적 함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프랑스의 바칼로레아(Baccalauréat) 지리 시험을 분석하여 평가적 측면에서 프랑스 지리 교육의 특성을 밝혀보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반계(Général), 기술계(Technologiques), 직업계(Professionnel) 바칼로레아 지리 시험을 대상으로 형식적, 내용적 측면에서 그 특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주요 분석 자료는 바칼로레아 지리-역사(Histoire-Géographie) 시험 중에서 지리 문항이다. 즉, 자료 획득상 최근 15년간(1999~2013)의 일반계 지리 문항, 최근 6년간(2008~2013)의 기술계 지리 문항, 그리고 최근 13년간(2000~2013)의 직업계 지리 문항이 그 분석 대상이다.

한편, 외국의 지리 평가 및 프랑스의 지리 교육에 관한 연구 동향을 일별해 보면, 먼저 외국의 지리 평가에 대한 연구로는 일본의 대학 입학시험인 센터시켄(センター試験)의 지리 문항을 중심으로 일본의 지

리 평가 특성을 분석한 연구(이간용, 2008a), 중국의 대학 입학시험인 가오카오(高考)의 지리 시제를 중심으로 중국의 지리 평가 특성을 분석한 연구(이간용, 2008b) 등이 대표적이다. 프랑스의 지리 교육에 관한 연구는 최근 이상균에 의해 의미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는 프랑스와 영국의 중등 지리 교육 목적을 비교 고찰한 연구(이상균 역, 2009), 프랑스의 지리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박사 학위 논문(이상균, 2010a), 현재 프랑스 지리교육의 연구 동향을 정리한 단보(이상균, 2010b), 그리고 프랑스의 지리교육사 150년 전통과 최근 동향 및 전망을 고찰한 논문(이상균·권정화, 2011) 등이 있다.

2. 바칼로레아 지리 시험의 맥락적 이해

1) 바칼로레아 개관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는 중등교육의 '완성'과 고등교육으로의 '입문'이라는 이중 기능을 수행하는 독특한 교육 제도로 평가된다. 이는 19세기 초에 출현하였으며 현행과 같은 체제는 1808년에 공포된 헌법부속령에 의해 탄생하였다(박순경 등, 1999, 232). 당시 바칼로레아는 문학과 과학 등 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830년에 지필 시험이 도입되었고, 1840년엔 평점 체제가 마련되었다. 이어 1852년에 논술(Épreuve écrite) 및 구술(Épreuve orale) 시험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문학 및 과학 바칼로레아 두 부문 모두의 구술시험에 역사-지리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하였다(Wikipédia). 그러니까 바칼로레아 형성 초기부터 지리 시험은 일정한 지위를 확보하기 시작하였던 셈이다. 1930년대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중등교육이 보편화되면서 바칼로레아 취득자는 급증하였으며, 1968년에 기술계, 1985년에 이르러 직업계 바칼로레아도 등장하게 된다. 1985년부터 프랑스 교육부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85%가 바칼로레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정영근 외, 309-310). 1995년에 일반계 바칼로레아는 L(문

학, Littéraire), ES(경제사회, Sciences économiques et sociales), S(과학, Scientifique) 등 3개의 전공 계열(Séries)로 정리된다.

시험 과목은 필수(Épreuves obligatoires)와 선택(Épreuves facultatives)으로 나뉘며, 필수 과목은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치러지는 조기 시험(Épreuves anticipées) 형태나, 3학년 말인 최종 학기에 치러지는 최종 시험(Épreuves terminales) 형태로 치러지기도 한다. 역사-지리 시험은 필수로서 문학과 경제사회 계열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에, 과학 계열에서는 고교 2학년에 치러진다. 바칼로레아에는 가중치(Coefficient) 제도가 있어 계열에 따라 각 시험 과목의 성적은 서로 다른 비중을 가진다. 예컨대 역사-지리 시험의 가중치는 문학 계열에서는 4, 경제사회 계열에서는 5이지만, 과학 계열에서는 3이다. 바칼로레아를 통과하려면 평균 20점 만점에 평균 10점 이상이어야 하며, 12~13.99점은 양호(Assez bien), 14~15.99점은 우수(Bien), 16점 이상은 최우수(Très bien)라는 평정 척도가 적용된다. 8~10점을 얻은 학생에게는 구술시험 형태의 만회 시험(Épreuve de rattrapage) 기회가 주어지며, 여기서 10점 이상을 받게 되면 바칼로레아가 수여된다. 만일 만회 시험에서 8점 이하를 받는 경우 고등학교 3학년을 과정을 재이수할 수도 있다(Wikipedia).

바칼로레아 시험은 6월 중순에 5일간에 걸쳐 시행되며 그 결과는 7월 초에 발표된다. 2013년의 경우, 2013. 06. 17(월)~06. 21(금)에 걸쳐 치러졌는데, 역사-지리 시험은 06. 18(화)에 일반계는 08:00-12:00, 기술계는 08:00-10:30, 직업계의 경우 06. 17(월) 14:00-16:00에 각각 시행되었다. 참고로 2013년 바칼로레아에는 총 664,709명이 응시하였는데, 그 중에서 일반계 응시자 수는 338,186명(51%), 기술계 142,835명(21%), 직업계 183,688명(28%)의 분포를 보였다. 이 중 일반계의 경우, 문학 계열에 응시한 학생 수는 58,293명으로 17%, 경제사회 계열은 107,674명으로 32%, 그리고 과학 계열은 172,219명으로 51%의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http://www.education.gouv.fr>).

2) 바칼로레아 역사-지리 시험의 특성

프랑스 교육부는 바칼로레아 역사-지리 시험의 목표(Objectifs)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집약하여 제시하고 있다(La note de service n° 2011-149 du 3-10-2011). 그것은 ① 역사적·지리적 사고(Réflexion) 능력과 시민적·문화적 소양(Formation civique et culturelle)의 함양 및 세계(Monde) 이해를 위한 기본 지식의 동원 능력, ② 언어의 정확한 구사 능력 및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논술 작성 능력, ③ 정보의 이용·조직·비교 능력, ④ 다양한 종류의 자료 분석과 비판적 탐구 능력, ⑤ 다양한 형태의 그래픽 언어(Langages graphiques)의 이해·해석·활용 능력 등에 대한 평가이다.

이처럼 프랑스의 지리 평가 목표도 세계 각국의 일반적인 지리 평가 목표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 다만 그 중에서도 문화적 소양 함양을 위한 기본 지식과 그래픽 언어력이 평가 목표로서 언급되어 있는 점이 주목을 끈다. 전자와 관련하여 Graves(1957)에 의하면, '문화적 소양의 함양이 일찍부터 프랑스 지리 교육의 목적으로 중시되어 왔으며, 프랑스 사람들은 이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이상균, 2009, 286), 이는 그러한 전통과 맥이 닿아 있는 평가 목표인 것이다. 이를 통해 프랑스의 지리 교육에서는 지리 지식이 시민적 자질과 개인적 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기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후자와 관련하여 1890년의 프랑스 교육과정에서는 중등 지리 교육의 목적으로서 "..... 학생들로 하여금 말로 표현된 것과 그래프로 표현된 것 뒤에 숨어 있는 실체를 볼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이상균, 2009, 277), 이를 통해 프랑스의 지리 교육에서는 일찍부터 문자 이외의 다양한 시각·공간 언어의 이해와 활용을 중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을 바탕으로 프랑스 바칼로레아 지리 시험에서는 지도 작성(Croquis)이라는 독특한 문제가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바칼로레아 역사-지리 시험은 일반계의 경우 총 4시간에 걸쳐 치러진다. 시험지는 역사와 지리 두 내용

영역으로 구성된다. 곧, 시험지는 1부(Première partie)와 2부(Deuxième partie)로 편성되는데, 본주제적인 1부에 지리 문항이 편성된다면, 부주제적인 2부에 역사 문항이 제시된다. 반대로 1부에 역사 문항이 제시된다면 2부에는 지리 문항이 편성되는 것이다. 문항 수는 1부에 세 문항, 2부에 두 문항이 제시되는데, 응시자는 각 영역별로 한 개 문항만 선택하여 시험을 보게 된다. 따라서 응시자의 입장에서 문항의 조합은 모두 여섯 가지인 셈이다(표 1). 다시 말하면 응시자는 1부에서 한 개 문항, 2부에서 한 개 문항을 선택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역사 문항 하나, 지리 문항 하나 등 총 두 개의 논제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표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만일 1부에 지리 문항이 편성될 경우, 난이도가 동등한 세 논제가 제시되는데 그중 두 개는 논술 문항, 나머지 하나는 자료 탐구 문항이다. 수험자는 세 논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2부에 지리 문항이 편성될 경우, 역시 난이도가 동등한 두 개의 지도 작성 논제가 제시되는데, 수험자는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 채점과 관련하여 역사-지리 시험은 20점 만점으로서 본주제적인 1부에 12점, 2부에 8점이 배당된다. 1부의 논제가 역사든 지리든 그래픽을 그려 내는 것에 더 높은 점수가 부여된다. 바칼로레아 역사-지리 시험의 다섯 번째 목적을 실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역사와 지리 중에서 어떤 것이 본주제이고 부주제가 될지는 당일 추첨을 통해 정해진다는 점이다. 이는 부주제보다 본주제의 배점이 높은 데 따른 두 영역 간 기회의 형평

성을 위한 방편이자, 본주제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을 통해 특정 영역의 학습 소홀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해석된다.

3. 프랑스 바칼로레아 지리 평가의 특성

1) 일반계 바칼로레아 지리 시험의 특성

(1) 형식적 특성

프랑스의 일반계 바칼로레아 지리 시험의 형식적 특성으로서 우선 시험지의 표지 양식을 보면 그림 1과 같다. 겉표지에는 별다른 장식 요소 없이 최소한의 필요 사항만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간결성은 시험지 본문에서도 나타나 문항 사이에 여백이 많고, 각 종 자료도 간소한 양식으로 디자인된다. 이는 바칼로레아 시험 문항이 기본적으로 서답형인 데다가 가독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A4크기의 시험지는 분량 면에서 해마다 차이가 있지만, 7~11쪽의 책자형으로 편철되어 있다. 문항 유형으로는 1부에 지리 영역이 편성될 경우 논술 작성형과 자료 탐구형 문항, 2부에 지리 영역이 편성될 경우 지도 작성형이 제시된다. 따라서 일반계 바칼로레아 지리 시험에서는 서답형, 그것도 논술과 지도 작성이 주요 평가 도구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논제의 서술 방식을 보면, 논술형의 경우 '독일: 유럽의 강국인가, 세계의 강국인가?(L'Allemagne: puissance pour l'Europe, puissance pour le monde?)'와 같은 형

표 1. 프랑스 일반계 바칼로레아 역사-지리 시험의 논제 편성

구분	가능성 하나	가능성 둘
1부 본주제	<역사> - 논제 1: 논술(Composition) - 논제 2: 논술(Composition) - 논제 3: 자료 탐구(Étude d'un ensemble documentaire)	<지리> - 논제 1: 논술(Composition) - 논제 2: 논술(Composition) - 논제 3: 자료 탐구(Étude d'un ensemble documentaire)
2부 부주제	<지리> - 논제 1: 지도 작성(Croquis) - 논제 2: 지도 작성(Croquis)	<역사> - 논제 1: 역사 자료 설명(Explication) - 논제 2: 역사 자료 설명(Explication)

출처: <http://www.education.gouv.fr/bo/2004/7/MENE0400158N.htm>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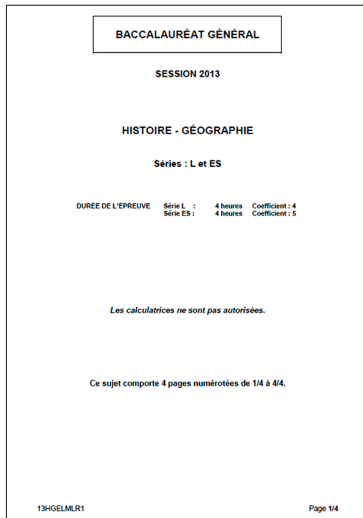


그림 1. 프랑스의 일반계 바칼로레아 역사-지리 시험지의 표지 양식

sance européenne, puissance mondial?)’, 혹은 ‘세계화 속의 영토: 그 불균등한 통합(Les territoires dans la mondialisation: une inégale intégration)’ 등과 같이 단문이나 개조식으로 간명하게 진술된다. 이는 지도 작성형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재편중인 공간: 러시아(Un espace en recomposition: la Russie)’, 혹은 ‘라인유럽의 공간 조직(L’organisation spatiale de l’Europe rhénane)’ 등과 같은 개조식 진술 방식을 취한다. 지도 작성형 문제에는 백지도(Fond de carte)와 범례(Légende) 용지가 따로 주어진다.

정리하면 프랑스의 일반계 바칼로레아 지리 시험은 디자인 면에서 간결하고, 평가 도구 면에서는 논술형, 자료 탐구형, 지도 작성형 도구를 통해 학습자의 지식 구성 능력을 측정하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논제의 서술 양식 면에서 단문이나 개조식 문구로 간략히 제시되는 등의 형식적인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아울러 역사와 지리 영역 간 문항이 균형적으로 배분되고, 학습자(수험자)가 자기 역량에 따라 문항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기회의 형평성과 개인의 선택성을 중시하는 프랑스의 교육문화적 특성도 읽혀진다. 이런 가운데 2013년의 경우 일반계 바칼로레아 지리 시험은 형식면에서 다소 간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시험지 분량이 4쪽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문항지 1부의 자료 탐구형 문항이 사라진 때문으로서 2013년부터 시작되는 문항 체제의 변화로 보인다.

(2) 내용적 특성

일반계 바칼로레아 지리 시험 문항은 문학과 경제사회 계열은 동일하고, 과학 계열의 경우 해에 따라 논제가 다소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학 및 경제사회 계열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문학 및 경제사회 계열의 지리 문항을 중심으로 그 내용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15년간의 두 계열 지리 시험의 논제를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표 2에 기초하여 지리 시험 논제에 제시되는 핵심어와 공간 단위를 재정리하면 표 3과 같다.

먼저 표 2, 3에서처럼 지리 시험의 논제에는 공간조직, 불균등한 통합, 인구와 개발, 경제 중핵지, 국력 등이 주요 핵심어로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대부분의 시험 문항이 공간 조직론적 관점에서 정치 및 경제 활동의 구조적 특성, 개발의 지역차와 그에 따른 지역 간 불균등한 통합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주제 면에서 프랑스 일반계 바칼로레아 지리 시험은 정치경제지리적인 담론성 논제가 주류를 이루는 특성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프랑스의 지리 교육에서는 인문지리 내용이 그 중추를 이루고 있다는 점, 더 구체적으로는 중등 지리 교육과정의 중심 개념으로 ‘공간 조직’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2002년에 공포된 일반계 및 기술계 고등학교 1학년 역사-지리 교육과정에는 그 중심 개념(Notion)이 ‘공간 조직(Organisation spatiale)’임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이상균, 2010, 367). 그런데 앞서 언급한 ‘정치경제지리적인’이란 어디까지나 인식의 편리를 위한 분류일 뿐이며, 논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지리학의 제 하위 분야 지식이 종합적으로 동원되어야 함은 물론일 것이다.

이어 지리 시험의 논제에 등장하는 공간 단위를 살펴보면, 축(Pôle) 단위로부터 국가, 대륙, 그리고 세계 규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세계 규모의 공간 단위의 등장 빈

표 2. 프랑스 일반계 바칼로레아의 문학 및 경제사회 계열 지리 시험 문제(1999~2013)

구분 연도	1부			2부	
	논술 작성		자료 탐구	지도 작성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1	문제 2
1999	-			독일 경제력의 본원지 (Foyers)	인도와 중국의 인구 밀도 및 주요 개발 중심지
2000	독일: 유럽의 강국인가, 세계의 강국인가?	인구와 개발: 중국이나 인도를 중심으로 (지도 작성 필수)	세계의 경제 공간은 어떻게 조직되는가?	-	
2001	미국 국토의 공간 조직 (지도 작성 필수)	세계의 개발 불균등 (지도 작성 필수)	일본 국토의 경제력 공간	-	
2002	-			러시아: 국토의 잠재력과 제약	일본: 국토의 공간 조직
2003	아프리카의 대도시: 기능, 사회적인 대조 및 도시 공간의 조직	독일 국토의 공간 조직 (지도 작성 필수)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 공간	-	
2004	-			세계의 개발 불균등: 남북문제	미국 국토의 공간 조직
2005	-			동아시아의 무역 흐름과 추동 중심지	세계에서 미국의 힘
2006	동아시아: 팽창하는 힘의 마당(Aire)	남반구의 개발 대조: 브라질을 사례로	라인 공간: 그 특성과 유럽에서의 지위	-	
2007	초강국 미국: 글로벌 공간에서의 형세와 각인	러시아: 재조직되는 국토	세계화의 원동력 공간은 어디인가?	-	
2008	-			남북문제	러시아: 인구 증가와 개발
2009	유럽연합: 경제력과 공간적 다양성	남북문제의 대면: 지중해 공간	글로벌 공간: 세계화 과정에서의 불균등한 통합	-	
2010	-			라인 유럽의 공간 조직	러시아: 인구 불균등과 개발
2011	-			브라질에서 개발의 공간적 대조	힘의 마당, 동아시아: 공간 조직
2012	-			공간 재편: 러시아	세계의 추동 중심과 개발 불균등
2013	남아프리카: 신흥 지역	세계화 속의 영토: 불균등한 통합	-	-	

도가 가장 높고, 미국이나 러시아 등의 대륙적 국가가 뒤를 잇는다. 아울러 경제적 영향력이 큰 국가나 경제

신흥 지역도 비교적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규모의 공간 단위가 등장하지만, 지리 시험 문제

표 3. 프랑스 일반계 바칼로레아 문학 및 경제사회 계열 지리 시험의 핵심어 및 공간 단위(1999-2013)

핵심어		공간 단위	
핵심어	등장 횟수	단위	등장 횟수
공간 조직(Organisation spatiale)	10	세계	8
불균등한 통합	9	대륙(대양)	3
인구와 개발	7	동아시아	2
경제 중핵지	6	아프리카	1
국력	4	유럽연합	1
대도시	1	라틴아메리카	1
		지중해	1
		국가	5
		미국	5
		러시아	3
		독일	2
		중국	2
		브라질	2
		인도	2
		일본	2
		축	2
		라인	2

에는 주로 대륙적 규모 이상의 국가나 지역 단위가 제시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 역시 프랑스의 지리 교육과정과 관련이 깊은데, 2002년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2학년의 ‘유럽과 프랑스’, 3학년의 ‘글로벌 공간, 세계 3대 열강(미국, 유럽연합, 아시아), 개발을 탐색하는 세계’ 등이 주요 학습 주제라는 점을(이상균, 2010, 374-380) 통하여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2008-2009의 최근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1학년의 ‘사회와 지속가능한 발전’, 2학년의 ‘세계화 속에서의 여러 영토’, 3학년의 ‘유럽 연합 내 프랑스’가 대주제로 편성됨으로써(이상균, 2010a, 422-424), 장차 지리 시험 문항에서도 내용적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과학 계열 지리 시험의 논제 특성도 문학 및 경제사회 계열의 그것과 본질적인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다만, 문학 및 경제사회 계열에서는 공간 조직, 불균등 개발, 인구와 개발이 상위 3대 핵심어라면, 과학 계열에서는 불균등 개발, 공간 조직, 경제 중핵지가 그것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전자에서는 공간 조직, 후자에서는 공간 격차에 관한 논제의 등장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제시되는 공간 단위 면에서는 문학 및 사회경제 계열에서는 세계, 미국, 러시아의 등장 비율이 높았던 반면, 과학 계열에서는 미국, 세계, 지중해 등으로 순위 변화가 있다. 특히, 과학 계열에서는 남북문제, 공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접경인 지중해 공간의 등장 빈도가 높았다. 그런 가운데 그동안 지리 시험에 등장하지 않았던 환경 문제나 프랑스 내 지방화 및 세계화 문제 등 환경 지리나 프랑스 국토 지리 관련 논제가 2013년에 이르러 출제되었는데, 이는 2008-2009 개정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변화로 보인다.

다음으로 문항 및 자료 구성 면에서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논제 3의 자료 탐구형 문항을 중심으로 2009년의 사례에 기초하여 살펴보자(표 4). 표 4에서 처럼 자료 탐구형 시험 문항은 ‘논제-탐구 자료-문제’의 구조를 지닌다. 그리고 문제의 경우 대략 분석에서 종합으로 인지 활동이 전개되도록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성도 발견된다. 곧, 어떤 지리적 현상을 소재로 사실 지식이나 공간적 패턴에 대하여 기술하도록 하고, 이어 특성을 비교하거나 요인을 설명하도록 유도한 다음, 중국적으로 이것들을 통합하여

표 4. 프랑스 일반계 바칼로레아 문학 및 경제사회 계열 지리 시험의 자료 탐구형 문항 사례

글로벌 공간: 세계화 속의 불균등한 통합

자료 1: 오늘날의 세계 무역
 자료 2: 세계 속의 나이키 회사
 자료 3: 동아시아의 대외 무역 및 GDP 성장률
 자료 4: 중국의 글로벌 대형 유통 업체의 분포
 자료 5: 세계화 속의 아프리카

1부: 탐구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1. 자료 1, 2, 4에 나타나 있는 세계화의 특징은 무엇인가?
 2. 자료 2에 따르면, 글로벌 공간에서 나이키 회사의 전략은 무엇인가?
 3. 자료 3, 4를 통하여 동아시아에서 불균등한 통합이 나타난 까닭은 무엇인가?
 4. 자료 5에서는 무엇을 말하려는지 자료 1, 2와 대비시켜 설명하십시오.

2부: 위의 물음에 대한 답, 탐구 자료에 내재한 정보, 그리고 개인적인 지식을 토대로 다음 논제를 구성하십시오.
글로벌 공간: 세계화 속의 불균등한 통합

처음에 제시된 논제를 논술하도록 짜여 있는 것이다. 이는 지식의 자기주도적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한다는 점에서 논제 1이나 2의 무(無) 자료형 논제 해결에 곤란을 느끼는 수험자들을 위한 대안적 성격의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다.

여기서 잠깐 바칼로레아 지리 시험에 제시되는 자

료의 특징을 살펴보면, 1999~2013년 기간 동안 문학 및 사회경제 계열의 경우 지도, 텍스트, 표, 그래픽, 사진 등 총 30개의 자료가 등장하였는데, 그 중에서 지도(Carte) 자료가 전체의 60%로서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 과학 계열의 경우도, 총 29편의 자료가 제시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지도가 전체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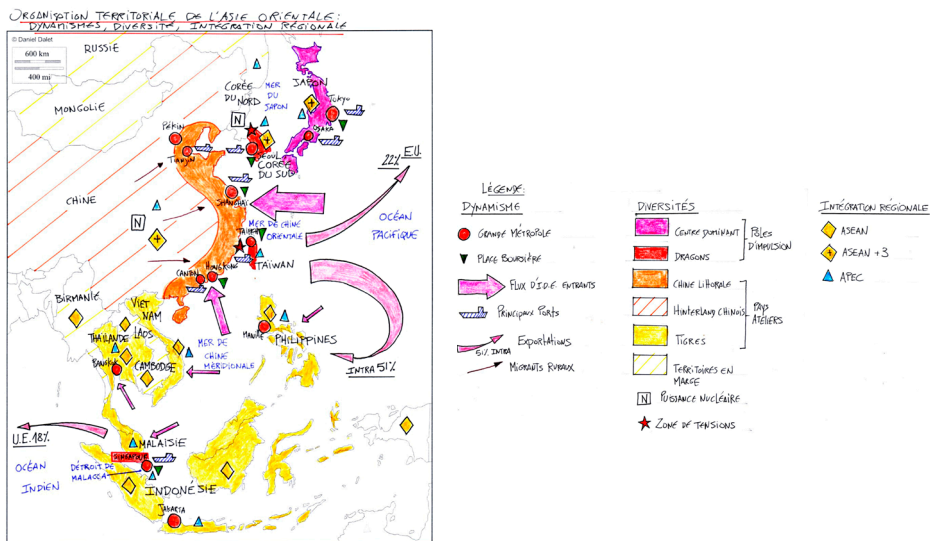


그림 2. 프랑스 바칼로레아 지리 시험의 지도 작성 사례

출처: <http://ferrier-histoiregeo.over-blog.com/25-categorie-11108319.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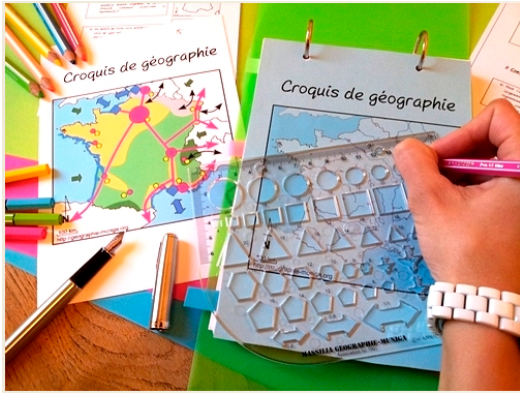


그림 3. 바칼로레아 지리 시험의 지도 작성 도구

출처: <http://geographie-muniga.org/Normographe.html>

의 79.3%로서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처럼 일반계 바칼로레아 지리 시험에서는 지도 자료의 활용이 아주 높았는데, 이는 공간 자료를 많이 다루는 지리 교과과의 특성과 더불어 일찍부터 다양한 종류의 그래픽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프랑스적 전통과 관계 깊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지리 평가에서 나타나는 가장 독특한 특성인 ‘지도 작성’이라는 논제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는 바칼로레아 지리 시험에서 ‘동아시아의 공간 조직’이라는 논제에 대한 지도 작성의 사례를 보여준다. 그림 2의 왼쪽에는 동아시아의 공간적 역동성, 다양성, 통합성 등을 다양한 기호와 색상을 활용하여 표현한 것이고, 오른쪽은 지도에 쓰인 범례에 대한 설명을 보여준다.

프랑스 지리 교육에서 지도 작성은 학습의 마무리 활동으로서 논술과 함께 중시된다. 지도 작성은 보통 몇 단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고등학교 과정 동안 훈련된다(이상균, 2010a, 251). 첫 단계는 준비 과정으로서 제시된 주제를 분석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표의 양식으로 적절한 정보를 취사선택하고 그에 해당하는 특성(Figurés)을 정하는 초안 작성 단계이며, 세 번째는 범례를 결정하는 단계이고, 마지막 단계는 그림 3과 같은 필기도구와 판형 도구(Normographe)를 활용하여 지도를 완성하는 단계이다.

이처럼 바칼로레아 지리 시험의 지도 작성 논제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뛰어 넘어 논술과 거의 동일한 사고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논술과 거의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종합적인 지리 지식과 공간적 사고를 동원하고 여기에 회화적, 기하적 감각도 요구된다는 점에서 지도 작성 논제는 ‘공간 논술’로 명명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지도 작성 아이디어는 비록 우리와 프랑스의 상황이 다르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의 지리 교육과정이나 평가 활동에 도입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며, 단기적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수행평가 방식으로라도 적용해 보직하다.

이상을 바탕으로 일반계 바칼로레아 지리 시험의 내용적 특성을 정리한다면, 그것은 프랑스의 국토 지리나 혹은 지리학의 순수 계통적 주제보다는 대륙적 국가 규모 이상의 공간 단위에 정치경제지리적인 통합적 주제가 결합된 형식의 세계지리가 강조된다는 점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인문지리적 전통이 강한 프랑스 지리 교육의 특성이 그 배경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의 지리 교육과정 변천사를 보면, 1905년 교육과정에서 경제 대국 개념의 등장, 1960년 교육과정에서 인문지리의 확대, 1980년대부터 인간 활동의 역동성 강조, 1987년 교육과정에서 세계적 공간 규모의 중시, 1990년대 들어 공간적 불평등 등이 강조되어 오늘날 학습 내용의 골격을 형성해 왔는데(이상균, 2010a, 54-65), 이러한 특성이 지리 교육 평가에도 투영된 것이다. 이를 통하여 프랑스의 지리 평가는 지리 교육과정과 높은 통합성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

2) 기술계 바칼로레아 지리 시험의 특성

(1) 형식적 특성

프랑스 기술계 바칼로레아 지리 시험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분석 대상은 자료 획득 상의 문제로 최근 6년간(2008~2013) 과학기술관리(STG) 계열의 지리 문항으로 한정하였다. 먼저 기술계 바칼로레아 지리 시험은 형식면에서 일반계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일단 시험지의 표지 양식은 일반계의 양식과 동일하고, 분량도 7~12쪽에 걸쳐 1부와 2부로 편성되는 면

표 5. 프랑스 기술계 바칼로레아 역사-지리 시험의 편성

구분	1부			2부	
	평가도구	서답	선택	지도 작성	자료 탐구
문항구성	문항 1-3	문항 4-6		예제 1-2	예제 3-4
	역사	지리		역사	지리

은 비슷하다. 그렇지만 문항 구성에서는 차이가 크다 (표 5).

1부는 역사 세 문항, 지리 세 문항 등 총 여섯 문항 (Questions)으로 구성되는데, 수험자들은 여섯 문항 모두에 답해야 한다. 이 중에서 역사 문항은 모두 서답형이며, 나머지 세 개의 지리 문항은 서답형, 선다형 혹은 단답형, 그리고 지도 작성형 등 다양한 문항 유형이 제시된다. 서답형 문항의 경우 선지식을 확인하는 문항, 선다형은 삼지선다 문항, 단답형은 개념 정의를 기술하는 문항, 그리고 지도 작성형은 주어진 지도에 도시나 항구와 같은 지리적 사실의 분포를 표시하는 문항이 주류를 이룬다.

2부는 자료 탐구 문항으로서 두 개의 역사 탐구와 두 개의 지리 탐구 등 총 네 개의 예제(Exercise)가 주어진다. 수험자들은 이 네 개의 예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여 답하도록 되어 있다. 문항의 구조를 보면, 일종의 대주제로서 탐구 예제가 주어지고 그와 관련된 자료가 제시된 다음에, 그에 따른 4~5개의 서답형 문제가 제시되는 방식이다. 탐구 자료는 보통 1~2개가 제시되는데, 자료 유형으로는 관공서나 기업의 홈페이지 화면, 지도, 통계표, 텍스트, 그래프 등 다양하다.

이처럼 기술계 바칼로레아 지리 시험에서는 일반계와는 달리 정의, 설명 등과 같은 진술식 서답형과 선택형 도구가 활용된다. 곧, 일반계 지리 시험에서는 논거에 따른 주장과 지식의 자기주도적 구성이 중시된다면, 기술계에서는 선지식의 확인이나 지리 개념의 정의, 자료의 해석 등 지리 지식에 대한 이해를 중시한다는 점이 다르다. 특히, 지도 작성 문항에서도 논제의 '구성적인 작성'에 초점을 두는 일반계와는 달리 '분포적인 표기'가 주류를 이룬다는 점도 대비된다. 한마디로 기술계 바칼로레아 지리 시험은 일반계

보다 다양한 평가도구와 문항 유형이 활용되지만, 상대적으로 용이한 인지 활동을 요하는 지리 문제가 제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일반계와 기술계 간 응시자 집단의 속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내용적 특성

기술계 바칼로레아 지리 시험의 내용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 6년간 기술계 바칼로레아 과학기술 관리 계열의 지리 시험 1부 문항의 내용을 정리한 것 표 6이다.

우선 앞서 밝힌 바와 같이 1부 시험은 자료 제시 없이 온전히 선지식에 의존하여 답하도록 요구하는 문항들로 구성된다. 표 6에서처럼 서답형의 경우 문명권, 인구이동, 메갈로폴리스, 대면 지대 등 지리적 현상의 특성을 열거하는 문제, 축이나 상호의존 같은 지리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문제, 교통수단과 세계화 간 관계와 같은 지리적인 일반화를 정당화하는 문제 등으로 구성된다. 곧 지리적인 지식에 대한 이해 정도를 측정하려는 것이다.

단답형이나 선다형의 경우도 이동, 상호의존, 개발 등과 같이 지리 개념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고자 의도하고 있다. 그리고 지도 작성형의 경우, 앞서 일반계에서처럼 통합적인 주제도 작성의 성격과는 달리 도시나 국가 혹은 경제권의 위치와 같은 분포 사실을 지도상에 기입하거나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그렇지만 지도 작성형 문항이 반드시 출제된다는 점에서 지리 학습의 본질적 특성이 고려되는 시험임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기술계 바칼로레아 지리 시험에서는 지리적 사실, 개념, 일반화 등 지리 지식의 기본적인 이해를 다양한 평가 도구를 통하여 측정하려는 특성이 나타난다.

표 6. 프랑스 기술계 바칼로레아 과학기술관리 계열 지리 시험 1부 문항 내용(2008-2013)

구분 연도	1부		
	서답형	선다형/ 단답형	지도 작성형
2008	서양 문명권의 중요한 특징 두 가지	이동 개념	세계의 추동 중심과 개발 불균등 표시
2009	아시아 메갈로폴리스군의 주요 특징	상호의존의 개념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 및 항구 표시
2010	글로벌 공간에서의 인구이동 특성 축(Pôle) 개념의 정의	문화권의 영속성이 글로벌 공간의 차이 요인임을 설명하는 사례	프랑스 및 영국의 식민 통치 지역 범례 구분
2011	교통수단이 세계화의 가속화에 큰 역할을 한다는 주장을 두 가지 이상의 논거로 정당화	인간개발지수 계산에 쓰이는 지표 세 가지	전통적인 열강과 신흥 강국 표시
2012	대면시대(Interface)의 특성	세계의 개발 차이를 측정할 지표 선택 및 정당화	세계 도시의 위치 및 지명 표시
2013	소비 형태의 획일화를 조장하는 세계화와 관계있는 것 열거 메갈로폴리스 열거 및 주요 특징		북미자유무역협정국 표시 개발도상국 및 세계 도시 2개의 위치와 지명 표시

한편, 2부 시험 문항은 자료를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하위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선지식 확인을 목적으로 삼는 1부 시험과는 성격이 구분된다고 하겠다. 표 7은 기술계 바칼로레아 지리 시험 2부의 논제를 정리한 것이다.

표 7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시험에 등장하는 공간 단위로는 세계와 유럽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는 일반계 바칼로레아와 마찬가지로 대륙적 국가 규모 이상의 공간 단위를 중심으로 지리 교육과정이 조직되어 있다는 특성과 더불어 세계지리 학습을 중시하는 프랑스 지리 교육의 지향점을 반영한다고 할 것이다. 이어 주제 면에서 볼 때, 커피를 소재로 삼아 세계 시장의 특성을 진술하도록 요구하는 문항이 자주 등장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커피가 세계적인 기호 식품이라는 점과 더불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공간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잘 나타내고, 또한 글로벌 공간의 불균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대증적인 사례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인터넷을 소재로 한 통신의 특성도 시험 소재로 자주 제시되는 편인데, 이것 역시 세계화를 촉진하면서도 공간적 불균등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소재라는 점에서 커피와 유사한 성격이 있는 소재인 것이다.

이처럼 기술계 바칼로레아의 지리 시험에서는 글로벌 공간의 경제나 사회적 불균등 문제가 시험의 주요 소재, 혹은 화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계 지리 시험에서 정치경제지리적인 담론적 통합 논제가 중

표 7. 프랑스 기술계 바칼로레아 과학기술관리 계열 지리 시험 2부 문항의 주제(2008-2013)

구분 연도	2부	
	자료 탐구형	
2008	상업: 세계의 거대 시장, 커피	통신: 인터넷의 발달
2009	유럽연합	중국
2010	보건	교육
2011	세계의 거대 시장, 커피	인터넷의 발달
2012	중국	유럽연합
2013	상업: 세계의 거대 시장, 커피	통신: 인터넷의 발달

표 8. 프랑스 기술계 바칼로레아 지리 시험 2부 문항 사례(2013년)

<p>예제 3/탐구 논제: 상업: 세계의 거대 시장, 커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요 커피 생산지 및 소비지를 열거하라. 전체적으로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가? 2) '공정 커피'란 무엇인가? 3) 스타벅스가 공정 무역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 제시 자료와 개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공정 무역이 개발업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쓰시오.
--

시된다면, 기술계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측면의 공간적 불균등 문제를 드러내는 구체적인 화제를 중심으로 지리 평가가 이루어지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일반계와 기술계 간 학문적 지향과 실용적 지향의 정도 차이와 관계가 깊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기술계 바칼로레아 지리 시험의 자료 탐구형 문제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2013년의 문항을 사례로 살펴보자(표 8). 표 8에서처럼 문항의 구조를 보면, 대략 지리적 사실에 관한 문제가 앞서고 이어 지리적인 특징의 설명이나 비교 문제가 뒤를 이은 다음, 제시 자료와 자신의 지리적 지식을 바탕으로 제시된 논제와 관련된 설명 문제로 귀결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곧, 사실 파악, 요인 분석, 관계 설명의 순서로 하위 문제 간 위계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짜여 있는 것이다. 이상을 토대로 프랑스 기술계 바칼로레아 지리 시험에서는 다양한 평가 도구가 활용된다는 점, 지리 지식의 구성과 통합이 강조되는 일반계 지리 시험과는 달리 선지식의 이해 정도에 초점을 둔다는 점, 세계 지리 학습이 강조되는 가운데 글로벌 공간상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불균등 문제가 주요 논제로 제시된다는 점 등이 그 특성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3) 직업계 바칼로레아 지리 시험의 특성

(1) 형식적 특성

최근 13년간(2000~2013)의 직업계 바칼로레아 지리 시험을 분석해 결과, 먼저 직업계 바칼로레아 지리 시험은 형식면에서 일반계 및 기술계와는 다소 다르다. 일단 시험지의 표지 양식은 일반계 및 기술계의 그것과 유사하지만, 쪽 구성과 문항 구성은 다르다.

쪽 구성의 경우 해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략 10~14쪽으로서 앞부분에 배치된 논제 1의 역사 문항과 뒷부분에 배치된 논제 2의 지리 문항이 각각 절반씩 차지한다. 그리고 비록 역사-지리 시험으로 한데 묶여 있지만, 쪽 번호를 연속적으로 붙이지 않은 채 각기 별도로 매겨져 사실상 역사와 지리 시험지가 분철된 형태이다. 수험자들은 역사와 지리 주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여 2시간 동안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이는 역사나 지리 영역 중에서 최소한 한 문항을 선택하도록 강제된 일반계 및 기술계 바칼로레아 지리 시험과는 다른 점이다.

문항의 구조는 '논제-자료 목록-문제-자료'의 순서로 짜여진 자료 탐구형으로서 일반계의 그것과 유사하다. 논제는 보통 화제+지역의 형식으로 간명하게 제시되며, 공간 단위는 특정 국가로부터 대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나 대체로 대륙 단위가 주류를 이룬다. 탐구 자료는 4~5가지로 한정되어 있는데, 신문 기사를 비롯한 텍스트(Texte), 통계표(Tableau statistique), 주제도(Croquis, Carte), 그림, 그리고 사진(Photographie) 등 다양하다. 13년간 제시된 총 55개의 자료 중에서 텍스트가 20개로써 36.3%, 지도가 17개로서 30.9%를 차지하고 이어 통계표, 사진, 그래프, 그림 순으로 나타났다. 제시 자료와 관련하여 주목을 끄는 것 중의 하나는 사진 자료의 경우 단지 장식물이나 다른 자료의 동반물이 아니라 의미를 담은 독립된 자료로서 제시되고, 사진 속 경관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2002년 지리 시험에서는 제시된 사진 속의 여러 경관 중에서 어떤 것이 새로운 경제 지구 개발의 결과물인지를 찾아내도록 요구하고 문제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문항은 보통 6개로 한정되어 있는데, 6개의 문항이 나열적으로 제시되기보다는 문항 간 위계 관계를 지니도록 배열된다. 그래서 마지막 문항은 앞선 문항에 대한 답, 수험자의 선지식, 제시된 부가 자료 등에 입각하여 논제를 정당화하도록 요구하는 종합 문제로서 앞의 일반계와 기술계 지리 문항의 자료 탐구형 문항과 동일한 구조를 보인다. 이 경우에 서술적인 답지 작성 이외에도 첨부된 지도를 완성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직업계 바칼로레아 역사-지리 시험 양식에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중의 하나는 2003년까지만 하더라도 지도 작성 문항이 반드시 제시되고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그 동안 역사와 지리 등 두 영역의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시험이 2012년 이후에는 시민 교육(Éducation civique) 영역이 추가되어 '지리-시민 교육-역사'의 세 영역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리 영역의 두 논제 중에서 하나, 역사 영역의 두 논제 중에서 하나, 시민교육 영역의 논제 하나 등 모두 세 개의 논제에 답하도록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리 문항의 경우, 기존의 자료 탐구형 문항으로부터 일반계 바칼로레아와 마찬가지로 논술형으로 문항 형태가 변모하고 있다.

(2) 내용적 특성

프랑스 직업계 바칼로레아 지리 시험의 내용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그 논제를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직업계 바칼로레아 지리 시험도 일반계나 기술계와 마찬가지로 정치 및 경제지리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한 세계 지리 문항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제시되는 탐구 자료도 대륙적 국가 규모 이상에서의 공간 구조나 조직 관련 자료, 무역, 증권, 투자, 기업 등에 관한 경제 지표, 신문기사, 통계 자료 등이 다수 활용된다.

핵심어의 측면에서도 일반계 및 기술계 바칼로레아 지리 시험과 마찬가지로 공간, 주변 혹은 변방, 개발 등과 같은 담론성 혹은 추상화의 정도가 높은 지리적 용어나 주제의 등장 빈도가 높다. 그런 가운데서도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핵심어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예컨대 2000년대 초반까지 정치경제지리적인 담론성 논제가 많았으나, 이후 프랑스 대도시에서의 인구 이동이나 세계 속의 프랑스의 위상, 혹은 연안 보존 문제 등과 같이 프랑스의 국토지리나 환경 지리적 논제가 제시되고 있다.

공간 단위의 경우, 대륙 규모나 경제권, 그리고 경제나 정치 강국이 주요 공간 단위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일반계와 유사하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프리카의 등장 빈도가 높는데, 이는 프랑스에 근접한 대륙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정치나 경제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에 기인할 것이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서 세계 그 자체를 소재로 삼기도 하지만, 세계 속에서의 위상이나 의미를 파악하고 그 특성을 제시하거나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문항이 많다는 점이다. 즉, 세계적 맥락(Dans le monde)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직업계 바칼로레아 지리 시험의 내용적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논제에 따른 하위 문항 구성의 특징에 대하여 2011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자(표 10).

표 9. 프랑스 직업계 바칼로레아 지리 시험의 논제 (2000-2013) †

연도	논제
2000	일본의 공간 조직
2001	현대 세계의 거대 지배 구조
2002	글로벌 공간에서의 아시아와 동아시아
2003	아프리카, 변방과 의존의 대륙
2004	세계 속에서 일본과 동아시아
2006	변방과 통합의 아프리카
2007	EU의 확장 효과
2008	미국의 국력
2009	변방의 대륙, 아프리카
2010	동남아시아의 경제 개발
2011	농업: 아프리카 발전의 지주(支柱)
2012	프랑스의 인구 이동 유형별 특성, 세계 속에서 프랑스의 위상
2013	연안의 보존, 공유지의 관리

† 2005년의 시험 문항은 구할 수 없어 누락되어 있음.

표 10. 프랑스 직업계 바칼로레아 지리 시험의 하위 문항 구성 사례(2011년)

<p>논제: 농업, 아프리카 발전의 지주(支柱, Pilier)</p> <p>탐구자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계의 농업 유형 2. 아프리카 각국의 농업 자료 3. 말라위, 아프리카 농업의 모델인가? 4. 아프리카의 경작지 5. 중국과 아프리카, 용과 타조 <p>문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료 1을 바탕으로 세계 3대 경제 중핵지(유럽·북미·아태 지역)에서 행해지는 집약적인 농업체제는 무엇인가? 2. 자료 2를 토대로 아프리카 농업 상황에서 관찰되는 두 가지 사실을 쓰시오. 3. 자료 2와 첨부된 지도를 바탕으로 자료 2에 제시된 것과 비교하여 아프리카 농업 상황의 다양성을 제시하시오. 4. 자료 3을 토대로 농업 정책과 관련하여 말라위의 선택은 무엇이었나? 그 이유와 효과는 무엇이었는가? 5. 자료 4와 5를 바탕으로 경작지 개발과 관련하여 오늘날 아프리카가 직면한 문제와 그 결과는 무엇인가? 6. 여러분의 지식, 제시된 자료, 그리고 위의 물음에 대한 답을 토대로 다음 논제를 구성하시오. <p style="text-align: center;">“농업: 아프리카 발전의 지주인가?”</p> <p>다음의 초안을 바탕으로 답을 작성하시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 농업의 큰 특징 - 정치적인 선택의 다양성
--

표 10의 사례에서처럼 문항의 구조를 살펴보면 사실 지식의 열거나 제시, 현상의 특징이나 결과 기술,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 등을 진술하고, 최종적으로는 이것들을 종합하여(Synthèse) 논제에 대한 답을 서술하도록 배열되어 있다. 여기에 경우에 따라 지도 작성 문제가 결부되기도 한다. 이는 일반계 및 기술계 바칼로레아 자료 탐구형 문항과 동일한 구조로서 이른바, 순차적 산물형 세트 문항(Ordered outcome items) 형식을 취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질적 평가를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Biggs, 2002, 174-178).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프랑스의 직업계 바칼로레아 지리 시험의 특성은 형식면에서 제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과 종합을 요하는 자료 탐구형 평가 도구가 주로 이용된다는 점, 내용 면에서 대체로 대륙적 규모 이상의 공간 단위와 정치경제지리적 주제가 결합한 세계지리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는 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계 및 기술계 바칼로레아 지리 시험과 본질상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상대적으로 일반계 지리 시험은 논제를 중심으로

지리 지식의 자기주도적 구성과 종합 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조하고, 기술계 지리 시험은 지리 지식의 이해 정도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두는 반면, 직업계 지리 시험은 제시된 자료를 분석, 종합하는 탐구 능력에 대한 평가에 주안점을 둔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전문 과정보다 상대적 특성은 2013년의 경우처럼 일반계 지리 시험에서 자료 탐구형 문항이 더 이상 출제되지 않는다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4. 요약 및 결론

프랑스의 지리 교육은 역사적 전통이 매우 깊을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과 대학입학시험에서도 역사-지리과가 필수로 지정되어 있는 등 공고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프랑스 지리 교육의 특성을 지리 평가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프랑스의 고등학교 졸업 시험이자 대학입학

시험인 바칼로레아 지리 시험에 대하여 형식적, 내용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그 특성을 구명하였다. 주요 분석 자료는 최근 15년간(1999-2013년도) 일반계 바칼로레아의 지리 평가 문항을 비롯하여 기술계 및 직업계 바칼로레아 지리 문항이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지리 시험은 학습자의 지리적 사고력과 시민적·문화적 소양 및 세계 이해를 위한 기본 지식 동원 능력,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논술 작성 능력, 정보의 이용·조직·비교 능력, 자료 분석과 탐구 능력, 그리고 그래픽 언어의 활용 능력 등을 측정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었다. 이 중에서 특히 문화적 소양의 함양과 그래픽 언어 능력 배양은 프랑스 지리 교육의 전통적인 목적으로 오늘날까지도 중시되고 있다.

둘째, 프랑스 바칼로레아 지리 시험의 형식적 특성으로는 편집 양식 면에서 전반적으로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간결한 디자인을 취하는 특징을 보였다. 평가 도구 면에서는 일반계의 논술형, 자료 탐구형, 지도 작성형을 비롯하여 기술계의 서답형, 단답형 및 선택형, 지도 작성형, 자료 탐구형, 그리고 직업계의 자료 탐구형 등 다양한 도구가 활용되었다. 이를 통하여 프랑스의 지리 평가에서는 논거에 따른 주장과 지식의 자기주도적 구성력, 지리 지식의 이해력, 그리고 탐구 능력 등을 중시하는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자료의 종류 면에서는 텍스트, 통계표, 주제도, 그림, 그리고 사진 등 다양하게 제시되는 가운데, 특히 지도 자료의 활용 비중이 높았다.

셋째, 프랑스 바칼로레아 지리 시험의 내용적 특성으로는 대륙적 국가 규모 이상의 공간 단위와 정치경제지리적 주제가 결합된 세계지리 내용이 그 요체를 이루었다. 다시 말해 공간 단위 면에서 축, 경제 대국, 정치 강국, 경제 신흥 지역, 세계 등 다양한 공간 단위가 제시되는 가운데 대륙적 국가 규모 이상의 거시적 공간 스케일의 등장 빈도가 높았고, 주제 면에서는 공간 조직의 특성, 정치 경제의 공간적 통합, 개발의 공간적 불균등, 국가의 세계적 위상 등 담론성이 강한 정치경제지리적 주제가 지리 평가의 주축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프랑스 지리 교육은 전체적

으로 지리적 현상에 대한 세계적인 맥락에서의 이해와 조망 능력이 강조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아울러 비록 단편적이긴 하나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역사-지리 시험을 통하여 두 영역 간 문항의 배분이나 편제, 혹은 수험자의 능력에 따른 문항 선택과 전문 과정별 서로 다른 문항 유형의 제시 등 여러 측면에서 기회의 형평성이 존중되는 교육문화적 특성도 일찌졌다. 이는 작금의 우리나라 교육과정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한편, 최근 바칼로레아 역사-지리 시험에는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즉, 2013년에 들어 기존과 달리 일반계 지리 시험에서 자료 탐구형 문항이 더 이상 출제되지 않으면서 문항 체제가 단순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2012년 이후 일반계 과학 계열이나 직업계 지리 시험에서 프랑스 국토 지리와 환경 지리적 주제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무엇보다도 직업계 역사-지리 시험에서 시민 교육이란 새로운 내용 영역이 편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이러한 경향의 지속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리 평가적 관점에서 바라본 프랑스의 지리 교육은 공간조직론적 관점을 통한 세계에 대한 조망적 이해를 지향해왔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리 교육의 위상이 높은 프랑스의 지리 교육적 특성을 평가적 측면에서 구명하고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참고 문헌

- 박순경·조덕주·채선희·정윤경, 1999, 비영어권 국가의 교육과정·교육평가 자료 번역집: 일본·중국·대만·프랑스·독일, 연구자료 RRC 1999-6-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32-240.
- 이간용, 2008a, "일본의 지리 평가 특성 분석: 대학입시센터 시험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6(3), 201-214.
- 이간용, 2008b, "중국의 지리 평가 특성 분석: 중국의 대학입시 지리 시험 문항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47(3), 85-108.

- 이상균 역, 2009, “프랑스와 영국에서의 중등 지리교육의 목적: 19-20세기 중반 시기를 사례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7(3), 273-288(Graves, N., J., 1957, Some historical and comparative aspects of the teaching of geography in French public secondary schools during the 19th and 20th centuries, London University).
- 이상균, 2010a, 프랑스 지리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 - 지리탐구논리와 공화국의 시민의식 형성-, 한국교육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균, 2010b, 현대 프랑스 지리교육의 연구동향: 정-프랑스어 페민느 교수와의 대담,”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8(2), 199-206.
- 이상균 · 권정화, 2011, “프랑스 지리교육사 150년의 전통과 최근 동향, 그리고 전망,”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9(2), 303-322.
- 정영근, 2011, 2011 교육과정 · 교육평가 국제 동향 연구사업: 독일 · 러시아 · 영국 · 프랑스 · 핀란드, 연구자료 ORM 2011-77-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08-316.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 5, “프랑스, KICE 교육과정 · 교육평가 국제동향 스크린,” 4(1), 연구자료 ORM 2012-40-1, 153-154.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 8, “프랑스, KICE 교육과정 · 교육평가 국제동향 스크린,” 4(2), 연구자료 ORM 2012-40-2, 197-226.
- Baccalauréat Général, 1999-2013, Histoire-Géographie, Série: L et ES.
- Baccalauréat Général, 1999-2013, Histoire-Géographie, Série: S.
- Baccalauréat Professionnel, 2000-2013, Histoire-Géographie, U-52.
- Baccalauréat Technologiques, 2008-2012, Histoire-Géographie, Série: STG.
- Biggs, J. B., 2002, Teaching for Quality Learning at University, Society for Research into Higher Education & Open University Press, St. Edmundsbury Press, 175-178.
- La note de service n° 2011-149 du 3-10-2011(NOR: MENE1123662N), Bulletin officiel spécial n°7 du 6 octobre 2011(<http://www.education.gouv.fr>, 2013년 8월 20일 검색).
- Wikipédia(<http://fr.wikipedia.org>, 2013년 8월 23일 검색).
- 교신: 이간용, 314-711, 충남 공주시 웅진로 27(봉황동), 공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이메일: kylee@gjue.ac.kr, 전화: 041-850-1633)
- Correspondence: Khan-Yong Lee, Dept. of Social Studies,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7 Woongjin-ro, Gongju, Chungnam-Do 314-711, Korea (e-mail: kylee@gjue.ac.kr, phone: +82-41-850-1633)

최초투고일 2013. 9. 3

수정일 2013. 10. 14

최종접수일 2013. 10. 20